

□ 남부동

*괴연동

마을은 동괴동(東槐洞), 서괴동(西槐洞), 용연동(龍淵洞)의 자연부락을 통칭하여 괴연동이라 한다. 원래 괴연은 회나무가 많은 지역이고, 용연이란 못이 있어 괴동의 첫글자와 용연의 끝자를 합하여 부르게 되었다. 즉 괴나무가 많았던 지역의 길을 중심으로 동쪽은 동괴동, 서쪽은 서괴동이고, 용연(龍淵)혹은 용소골은 용연동이었다. 또한 점촌은 일명 점등이라고 부르며 옛날 도요지가 있던 지역이라서 명명된 지역이다. 이 마을은 예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러기의 고인돌이 있고 많은 고분이 있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는 가야 토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 삼국이전에 이미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노동

금노동은 세 동네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노1동인 쇠늘이는 온 동네가 넉넉하여 붙여진 이름이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가난한 사람이 늘어가니 부유함이 쇠퇴해 간다고 안타까워서 생긴 이름이다. 금노2동인 담안은 이곳에 있던 영천 외성(外城)의 안쪽이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성 안이란 뜻으로 지어진 명칭이다. 금노3동인 주남은 글자 그대로 주남평야의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지칭된 명칭이다. 일면 부흥동(富興洞)이라 부르기도 한다. 원래 완산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개편으로 영천면에 속하고,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주남동에 속하게 되었다.

*도남동

도남동은 청제평야의 북단지역에 위치한 부락이다. 마을은 윗각단, 아래각단, 불당골, 사이각단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청제비의 유적으로 보아 서기 5백년 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헌에도 도동화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현대적인 행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칠백면 도동동이 되었다. 1914년 행정조정때는 도동동과 예곡면 봉동 일부를 편입하여 도남동으로 개칭하고 금호면에 복속 시켰다. 다시 1983년 2월 15일 행정조정에 의하여 봉작동에 속했다.

*도동

도동은 원래 도남동과 같은 문화권에 있었다. 신라시대에는 도동현(道同縣)에 속하여 있었으며 당시로는 상당한 문화지역이었음을 몇몇 문헌이나 유적에서 감지할 수 있다. 이곳은 전촌(錢村), 동당(東塘), 구역(舊驛), 옹기점 등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촌은 옛날 주소소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동당은 동편에 못이 있다하여 생긴 이름이다. 그리고 옹기점은 도요지가, 구역은 영천지역 최초의 역이 있었던 지역이다. 또 요도는 옛날 죄인의 유배지로서 금호강과 북안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연적으로 삼각주가 만들어진 곳이다. 이와 같이 모든 자연부락을 통합하여 도동이라 불렀으며 완산면에 속하였다. 그러나 1914년 행정개편으로 완산면이 폐지되고 새로 구성된 영천면에 속하고 그 후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다시 주남동에 속하게 되었다.

*범어동

범어동은 두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네다. 안범어와 진네기인데 안범어 마을 뒷산이 마치 물위에 떠있는 고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고, 진네기는 옥비녀처럼 길게 뻗은 들

판이 있어 항상 풍작을 약속하는 기름진 땅이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 동네는 원래 완산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개편과 함께 영천면에 속하였고 그 후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봉작동에 속한다.

*** 본촌동**

원래 이 마을은 예실이라 불렀다. 담들, 오실들, 뱅방골, 고래천 등 자연지역을 통칭하여 동네를 이루고 있다. 담들은 예실못둑을 지칭하여 생긴 명칭이다. 구전에 유씨라는 성씨를 가진 분이 살았는데 못을 막고는 후손이 끊어지고 살림이 줄어들어 다른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이유인즉 유씨의 선조 유택이 마침 벌과 같은 형세이므로 못을 막고나니 벌이 못에 빠지는 형상이었다는 풍수지리설 때문이다. 또 뱅방골은 마을의 어떤 사람이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깨비에게 정신이 빼앗겨 밤새도록 주위를 뱅뱅돌고 있었다 하여 지칭된 명칭이라 한다.

*** 봉동**

봉동은 원래 봉강동이다. 예를 송상한 지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큰마을을 비롯하여 신당골, 정모랭이 등이 있다. 신당골은 원래 신당이 있어 지칭된 지역이고 정모랭이는 옛날 이동네 사람이 죽었는데 마침 이 지역에서 상여가 움직이지 않아 마을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잘 가기를 빌어 간신히 상여가 움직였다고 한다. 그래서 정을 두고 돌아가는 길이라 하여 지칭된 명칭이라고 한다. 행정적으로는 원래 봉동으로 예곡면에 소속되었으나 1914년 개편과 함께 주막동 일부와 합하여 영천면에 속하였다. 1981년도에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새로 지칭된 봉작동에 속하였다.

*** 채신동**

채신동은 원래 명칭은 신동(新洞)이었다. 즉 본촌동과 괴연동 사이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물론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가옥이 몇집 되지 않아 행정상 동네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차츰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독립된 동네가 되었다. 마을은 신동을 비롯하여 양지평, 덕골, 독대골, 황산 등의 자연지역을 통괄하여 이루어졌는데, 환산은 원래 황삼(黃森)으로 이곳에 집단적으로 삼밭이 있었다고 지칭된 명칭이다. 신동은 1914년 행정개편 당시 채신동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예곡면에 속하였으나 그 명칭이 없어지고 영천면에 속하였다. 다시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영도동이 신설되어 이에 속하게 되었다.